

자동차 부품산업의 변화

KDB미래전략연구소 산업기술리서치센터
이 정 (leej@kdb.co.kr)

- ◆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 및 완성차 업계의 미래차 전환 전략은 자동차 부품의 전동화 추세도 가속화시키고 있으며, 이에 따라 엔진 등 내연기관 부품산업 규모의 빠른 위축이 예상됨
- ◆ 자동차부품 기업들은 전기차,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관련 업종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업활력법상 사업재편 제도를 활발히 활용하고 있음

□ 우리나라 2030 국가 온실가스 목표(NDC) 상향, 국내 완성차 업계의 전동화 전환 전략 등에 따라 자동차 부품의 전동화 추세도 가속화되고 있음

- 정부는 '21.10월 2030 국가 온실가스 목표(NDC)를 상향하면서, 친환경차 보급 등 수송 분야의 온실가스 목표도 기존 28.1% 감축에서 37.8% 감축으로 상향
- 현대차는 '35년까지 유럽시장의 100% 전동화를 달성하고 '40년까지 전체 판매의 80%를 전동화할 계획이며, 기아차 역시 '30년 전기차(EV) 120만 대 판매의 목표를 제시('22.3.2~3일, CEO 인베스터 데이)

□ 우리나라 완성차 업체의 수출시장* 중 북미, 중국, 유럽의 3개 지역 비중은 '21년 현재 전체 시장의 64.3%로 전동화가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며, 이에 따라 국내 내연기관 부품산업 규모의 빠른 위축이 예상됨

* 국내 생산 차량의 수출과 현지생산을 포함함

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시장(수출+현지생산) 규모

(단위 : 천 대, %)

구 분		2019	비중	2020	비중	2021	비중
전동화 핵심시장	북 미	1,980	31.5	1,702	34.0	1,697	31.9
	유 럽	1,400	22.3	1,036	20.7	1,234	23.2
	중 국	956	15.2	698	14.0	489	9.2
	소 계	4,336	69.0	3,436	68.7	3,420	64.3
기타 시장		1,948	31.0	1,562	31.3	1,903	35.7
총 계		6,284	100.0	4,998	100.0	5,323	100.0

자료 :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원자료를 당행이 가공

- EU는 '35년부터 유럽 내 내연기관을 장착한 신차 판매 금지를 발표(Fit for 55)하였고, 중국도 '35년 신에너지차(플러그인하이브리드, 순수전기차, 수소차) 50% 이상 달성 목표를 제시(신에너지차 로드맵 2.0)하였으며, 미국 또한 '30년 신차 판매의 50%를 전기차*로 확대하는 행정명령('21.8월)을 공포

*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포함

- 자동차 수출시장 비중이 64.3%인 EU, 북미, 중국에서 향후 순수전기차 비중이 평균 50%에 다다를 경우,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시장의 3분의 1 만큼 미래차 시장으로 바뀌며 이는 동일 규모의 내연기관차 수출시장이 사라짐을 의미

- 정부는 자동차 부품기업의 46.8%, 고용의 47.4%가 사업재편이 필요한 기업군으로 판단하고, 미래차 전환 등 사업모델 혁신과 사업재편 지원 수단을 확충

자동차 부품 분야별 업체 수 및 고용인원

구분	품 목	기업 수 (비중)	고용 인력 (비중)
감소군	엔진 부품, 동력전달, 전기장치*	4,195社 (46.8%)	10.8만 명 (47.4%)
유지군	조향, 현가, 제동, 차체, 시트, 공조 등	4,561社 (50.9%)	11.1만 명 (48.7%)
확대군	미래차 주요 부품 (각종 전장*, 배터리 등)	210社 (2.3%)	0.9만 명 (3.9%)

* 전장 분야는 감소군(약 70%, 내연기관 전용)과 확대군(약 30%, 전기차용)이 혼재
자료 :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('21.6.10), "자동차 부품기업 미래차 전환 지원 전략"

- 정부는 자동차연구원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사업재편 필요 분야인 감소군 기업 중 '30년 기준 900개 기업이 감소 가능한 것으로 보고, '30년까지 부품기업 1,000개를 미래차 기업으로 전환하는 목표를 제시('21.6월)

- 국내 자동차부품 기업들은 기업활력법에 따른 사업재편 제도를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으며, 기타 업종 기업들도 미래차 관련 업종으로 진입하는데 동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음

-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(기업활력법)에 따른 사업재편 제도는 정상기업의 선제적·자발적 사업재편을 지원하여 사후적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경제·사회적 비용을 예방할 목적으로 '16년부터 시행 중임

- 동 제도는 '과잉공급 완화', '신산업진출', '산업위기지역 위기극복'의 3개 유형에 속하는 정상기업이 선제적 체질개선과 혁신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, R&D, 정책금융, 컨설팅 지원은 물론 세제 우대, 상법 절차 간소화, 공정거래법 규제 유예 등을 제공

'21년 기업활력법 적용 사업재편 기업 승인 현황*

승인기업의 기존 사업		신규 희망 사업	
		미래차 관련 업종	기타 유망 신산업
자동차부품 업종	34개	32개	2개
기타 업종	74개**	19개**	55개
총 계	108개**	51개**	57개

*기존 사업 업종은 신용정보사 등록 업종코드로, 신규 사업 업종은 정부 보도자료 설명을 기초로 당행이 집계

**완성차업체 1개사 포함

자료 : 기업활력법 종합포털, <https://www.oneshot.or.kr>, 제25-28차 사업재편 승인 내용을 당행이 가공

- '21년 중 사업재편 승인을 받은 총 108개의 기업 중 기존 사업이 자동차부품업인 기업은 총 34개 사로 전체 승인 기업의 31.5%를 차지하였으며, 이 중 전기차,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관련 업종으로 사업재편을 신청한 경우는 32개 사, 타 업종으로 사업재편을 신청한 경우는 2개 사임
- 자동차부품 이외 업종 종사 기업 74개 사(완성차 업체 1개 사 포함) 중 미래차 관련 업종으로 전환을 신청한 경우도 19개 사에 달해, 신규사업을 미래차 관련 업종으로 전환할 목적으로 기업활력법 상 사업재편 제도가 적극 활용되고 있음